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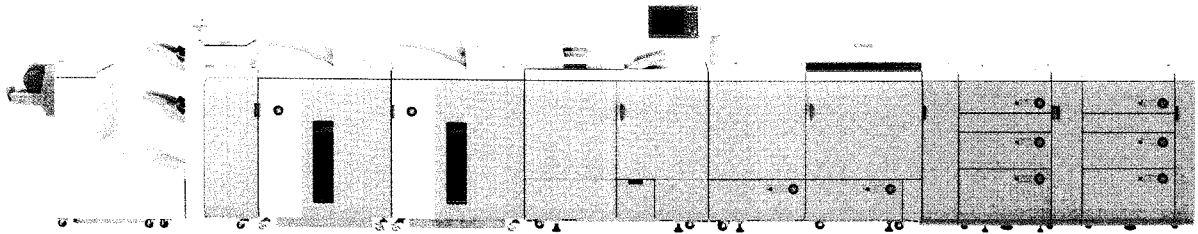
캐논코리아 P&S 사업팀

# 2010년 업계 1위 목표 젊은 패기로 뚝뚝

복합기로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캐논코리아에 상업인쇄, POD, 출력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바로 P&S사업팀(Printing & Solution)이다. P&S사업팀은 캐논의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 고생산성 장비 및 대형프린터와 관련된 솔루션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총인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P&S팀은 직판영업, 솔루션 기술지원, 서비스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성원 모두가 시스코의 네트워크 자격증인 CCNA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내의 CMS 전문 강자를 수료한 컬러 제품 전문가여서 고객들의 환경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처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도 제안하는 등 전설턴트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김종현 팀장(맨 오른쪽)과 15명의 P&S사업팀원들



지난 1월 1일부로 단행된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팀이기도 하지만 P&S팀은 대부분의 팀원이 20~30대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젊은 조직인 것이 특징이다.

P&S팀의 김종현 팀장은 “패기와 열정이 넘치며 선배 사원의 경험과 후배사원의 패기가 잘 어우러져 팀워크가 뛰어난 것이 강점”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면 2010년 업계 1위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적극적 시장개척,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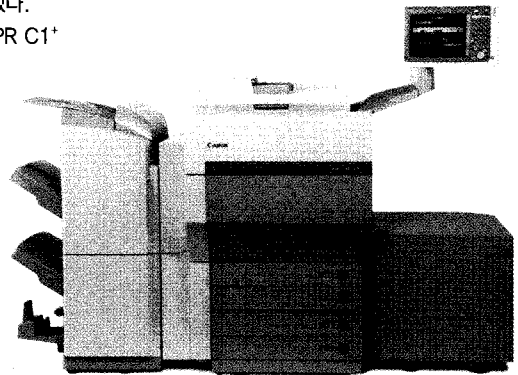
내수 침체의 여파로 국내 인쇄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는 요즘이지만 P&S팀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은 물론 사용자가 호응하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력 기종인 iPR C7000VP를 중심으로 기존의 상업인쇄 시장뿐만 아니라 트랜스프로모시장, 맞춤형 포토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며 현재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대도시의 중요 거점을 중심으로 제품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와 뛰어난 품질을 앞세운 대형프린터의 잇따른 출시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라인업을 구축하여 꾸준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척에도 나서 무선 프린팅 환경인 U-Printing 시스템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얼마 전 이화여대 POD센터를 롯데정보통신과 함께 구축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시한 고속컬러장비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고속 흑백장비를 출시할 예정이다. 풀 옵션 장착 시 길이가 10m에 달하는 고속·고용량의 장비이며 오프셋인쇄를 능가하는 최고의 인쇄 품질을 실현한다. P&S팀의 운성호 대리는 “캐논의 새로운 글로벌사업 전략 중 하나가 POD사업

- ① 주력제품인 iPR C7000VP. 분당 70매의 등속인쇄를 실현하고 있다.
- ② iPR C1+



강화인 만큼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은 최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DM과 트랜스프로모 시장에 투입해 적극적으로 판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당 70매 등속 인쇄 실현

현재 P&S영업팀의 주력제품은 iPR C7000VP이다. 이 기종은 상업인쇄의 소량다품종 POD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디지털 컬러 인쇄기로서 ‘듀얼 정착 시스템’을 채용해 업계 최초로 용지 종류와 무게에 관계없이 분당 70매의 등속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 대비 최대의 생산성을 구현, 구매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분류, 정합, 스테플, 펀칭, 중철제본, 무선제본/재단까지 가능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에 있어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컬러 매칭 및 imposition 뿐만 아니라 가변데이터 출력도 가능하여 DM시장, 트랜스프로모시장과 하이브리드 인쇄환경에 최적화된 장비이다. iPR C7000VP는 카탈로그, 잡지, 매뉴얼, 앨범, 포토북, 서적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해 상업인쇄 시장에서부터 컬러인쇄 전문업체, 기업 내 중앙인쇄사까지 고객과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생산성 극대화로 POD 시장에서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